



1998년 브라질 총선거와 노동자당(PT)

지난 10월 4일 1억 6백만명의 브라질 유권자들은 경제위기 심화로 약 3백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주지사,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 그리고 주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치루었다. 브라질의 정치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노동자당' (이하 PT)의 존재 때문에 브라질의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전 수주동안 하루 10억달러씩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경제 불안이 증폭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은 1년전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글은 올해 브라질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PT의 성취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까르도소의 승리

10월 13일 최종 집계 결과 중도보수 노선의 까르도소가 53.06%의 득표(3,593만명)로 1차 투표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노동계 후보인 몰라는 31.7%의 득표(2147만명)로 89년부터의 세 번

째 도전에 실패하였다. 까르도소는 정부를 지지하는 5개 중도보수정당 (PSDB, PFL, PMDB, PPB, PTB)의 지지를, 몰라는 5개 좌파정당 (PT, PDT, PC do B, PSB, PC)의 지지를 받았다. 몰라와 5개 좌파정당은 "민중의 단결이 브라질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으로 5개 정당의 제휴를 통하여 연합전선을 펼쳤다. 몰라의 부통령 후보는 PDT 당수이며 히우데자네이로주의 주지사를 지낸 브리졸라로서 그는 1994년 선거에서 3.2%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몰라의 패배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견된 바였다. 선거 수일전 여론조사 결과 까르도소 지지는 46%, 몰라 지지는 26%로 나타나 여론과 인연의 관심은 까르도소가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어 결선 투표없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득표를 분석해 보면 지난 94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94년 선거에서 54%를 기록한 까르도소는 이번에 53%를 기록하여 1%의 감소만을 보이고 있다. 몰라

는 지난 선거에서 27%를 얻었으나 당시 올해 물라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브리졸라가 독자적으로 출마하여 3.2%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득표율 31.7%는 결국 94년 물라와 브리졸라의 득표율 30.2%에서 1.5% 증가한 데 불과하다. 특히 94년 선거는 까르도소가 재무장관 재직시 헤알플랜을 통해 브라질의 고질적인 인플레이를 제압한 직후에 치러진 데 비해 올해는 경제위기의 악화 도중에 선거가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카르도소의 선전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좌파의 약진을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742만명의 지지로 11%의 득표율을 올린 PPS(민중사회당)의 시로 고메스의 선전 때문이다. 고메스는 까르도소가 이끌고 있는 PSDB(브라질 사회민주당) 출신으로서, 그가 후보로 나선 PPS는 PCB(브라질공산당)가 당명을 바꾸어 새로 조직한 정당이다.

대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좌파 정당은 연방의원 선거의 선전으로 활기에 넘쳐있다. 물라를 지지한 5개 좌파 정당은 선거 당시의 일시적 제후에 그쳤던 지난 번 대선과는 달리 프렌치 암플라(Frente Ampla: Broad Front)라는 상설연합체를 구성하여 까르도소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시로 고메스가 물라와의 보다 원활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어, 브라질 위기가 심화되고 까르도소의 처방이 실패할 경우 브

라질 중도좌파 연합이 중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개 좌파정당 연합의 상설기구는 까르도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제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까르도소 승리의 배경

까르도소의 승리는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앞으로 4년간 까르도소의 경제적 리더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까르도소는 이미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엄격한 경제안정화 정책, 특히 세금인상과 복지비용의 축소를 추진할 의사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외신에 의하면 까르도소를 지지한 과반수의 브라질 유권자는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초인플레이를 제압한 적이 있는 까르도소가 다시 브라질을 경제회복의 길로 인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브라질 하층민의 상당수가 까르도소 정부에서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플레이의 진정파 하층민에 대한 신용확대 조치로 하층민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까르도소에 대한 지지가 순전히 까르도소에 대한 신뢰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유권자들이 대안의 부재를 까르도소 지지의 원인

으로 들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세계화와 경제자유화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면서도 과거의 비생산적 국가 개입 정책 역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미 정세의 보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마이아미 헤럴드는 플라의 패배를 PT의 보호주의적, 국가주도적 경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보고 있다.

플라 지지자들은 까르도소가 브라질을 외국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플라도 구체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까르도소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 진영이 내세운 플라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13가지 이유 중 경제회복과 관련된 것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두 가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학교교육의 확대, 보건위생의 증진, 굶주림과의 전쟁, 농업개혁, 청소년 대책,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의 증진, 정치개혁, 국가의 사회적 통제의 분권화 등 거의 대부분이 분배와 복지 중심으로 짜여 있어 경제위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지로



브라질 현직인 최초로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 까르도소. 그는 1970-80년대 중후반의 핵심이론가였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진도사가 되었다.

물린 중산층에게 플라의 분배와 보호 중심의 정책이 상당히 호소력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나, 플라가 과연 브라질 경제위기를 헤쳐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평자는 PT가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슬로건을 이용한 것도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확보에 실패한 또 다른 이유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플라의 패배를 기본적으로 재정부족에 돌리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문명이 많고 대부분 유권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TV 광고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TV는 대부분 보수적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특히 시청률이 가장 높은 우

글로보(O Glovo)는 불라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유명하다. 이런 환경에서 자금부족은 유권자에 다가갈 중요한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라의 1차 선거 목표를 걸선 진출에 둔 것도 걸선부표에서는 TV와 라디오의 광고시간이 양 후보에게 동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 무효표, 백지표, 기권이 모두 3800만표에 이르러 유권자의 반응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까르도소가 받은 3594만표보다 많은 표이다. 1994년 선거에서는 백지/무효표가 18.8%, 기권은 17.8%였는데 올해는 백지/무효표가 18.7%, 기권이 21.5%로 기권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위기가 이념적 토른을 자극하지 못하여 후보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크게 드러날 수 없었고, 또 유권자의 후보나 후보의 공약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지사 및 연방 상하원 선거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27명의 주지사 (26개 주와 연방수도인 브라질리아)와 27명의 상원의원, 513명의 하원의원, 1,059명의 주의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다. 주지사 선거의 경우 14개 주에서 1차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었으며, 13개 주는 10월 25일의 걸선부표를 남겨놓고 있다. 주지사 선거에서 PT는 1차에서 1명의 주지사(아크레)를 확



정지였으며, 3명의 후보가 브라질리아와 마트그르소두술, 허우그란테두술에서 PMDB, PSDB의 후보와 걸선에서 겨루고 있다. 동시에 사용파울로, 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브라질리아 등지에서 PSDB와, 허우데자네이로에서는 PDT와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이 주에 따라 자기 당 정책의 수용이나 각당 우세 지역에서 정치적 지지를 상호 교환하면서 각기 다른 당의 후보와 다양한 제휴를 맺는 것은 브라질의 특이한 정치풍토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지난 선거에서 2명의 당선자를 낸 것에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는 정원 81명중 1/3을 선출하는 8



브라질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상파울로 거리 곳곳에서 홈리스와 거지들을 볼 수 있다.



하고 있는 것은 보수주의 지배구조 하에서 좌파정당의 득표가 한계에 근접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표] PT의 성장

	1982	1986	1990	1994	1998
주지사	-	-	-	2	1+(0~3)
상원	-	-	1	5	7
하원	8	16	35	50	58

년 임기의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3명의 당선자를 내어 상원의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으며, 하원의원은 50명에서 5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PT가 1982년 처음 하원의원 8명을 배출한 이래 꾸준히 의석수를 늘려왔다는 점에서 PT의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석수의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하원의원의 경우 82년 8명에서 86년 16명, 90년 35명으로 두배씩 증가하다가 94년 50명으로 50% 증가에 그쳤고, 올해는 58명으로 16% 증가에 그친 것이다. 물론 절대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율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나 절대수 증가폭이 점차 감소

이번 선거의 특징은 정부를 지지하는 5개 정당(PSDB, PFL, PMDB, PPB, PTB) 소속 의원이 392명에서 377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야당연합 5개 좌파정당 소속의원은 96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시로 고메스를 지지한 PL과 PPS를 합하면 총 야당의원수는 113명에서 124명으로 증가하였다. 상원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은 69명에서 68명으로 한명 감소한 반면, 야당은 13명으로 한명 증가하였다. 이 점에서 전반적으로 대선의 득표율이나 상하원의 의원분포는 1994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도보수 연합 5개 정당 392명중 60~70명정도는 반까르도소 노

선으로 의회에서도 반정부적 입장에 있으나 이 그룹의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오히려 까르도소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까르도소의 인기와 신뢰가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세력확대와 친 까르도소 의원의 증가라는 양극화 현상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전반적으로 좌파로 구성된 야당은 의원 총수의 20%선이며 PT 역시 10%를 조금 넘어 정국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후 전망

1994년 대신 5개월전인 5월 여론조사에서 룰라는 까르도소를 42% 대 17%로 리드하면서 큰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룰라는 27%의 표 차로 무릎 꿇고 말았는데 제임스 페트라스는 1994년 룰라의 패인을 제도정당의 한계와 선거전략의 오류에서 찾은 바 있다. PT가 제도 정당화하면서 사회운동의 활동 저하와 활동가의 감소에 따라 하층계급 동원과 정치화에 실패하였으며, 룰라의 선거전략이 중간계급과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기업과 은행, 보수적 교회의 취향을 반영하도록 PT 프로그램을 변형(국유화 부인, 점진적 민영화, 외채지불 정지 부인, 유산·이혼 반대 등)함으로써

잠재적 지지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킨 데 선거 패배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백억 달러의 외화유출과 환율불안, 8%가 넘는 실업률과 재정 삭감 전망으로 브라질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PT가 페트라스의 처방에 따라 보다 과감한 조직과 동원에 나설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서유럽에서의 좌파정당의 득세와 '제3의 길'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94년 선거에서 그랬듯이 PT 정책이 분배 중심에서 기존의 경제체제의 현실적 요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PT 소속 의원들은 온건파와 전직 시장들이 대부분으로 협상과 제안에 익숙하다. 반면 급진파는 의회에 진출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PT의 의회 내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룰라도 현재 까르도소와의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고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PT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PT는 이미 까르도소가 제안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PT가 집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정당으로서 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혁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페트라스의 권고에 따라 하층민의 동원과 조직을 더 중시할 것인지를 선택은 브라질 정치에 중대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